

02-12 회의: 테일러 룰 기반 통화정책 분석 모델, 톤 인덱스 정의, 시장 반응·텀 프리미엄, 데이터 파이프라인·백테스트 계획

회의 정보

> 날짜: 2026-02-12 19:01:26

> 장소: [삽입 위치]

> 참석자: [Speaker 1] [박종호]

회의 노트

- 통화정책 분석 모델 개선 방향
- 전문가 설정과 심층 분석 데이터 소스 검증 항목이 존재하며 최근 일부 변경됨.
- 키워드 기반 매파/비둘기파 구분과 가중치(0.5~3) 적용 방식의 수학적 의미·정규화가 불명확하다는 문제 제기.
- 가중치가 단순 웨이팅인지, 모델 파라미터(알파/베타 등) 해석 조정인지 구분 필요.
- 단어별 중요도 차등 적용, 단어 조합과 컨텍스트(언어 구조) 반영 제안.
- 총재 기자회견의 톤, 강조점, 맥락 등 정성변수를 모델에 포함 필요.
- 결론: 테일러 룰 기반의 핵심 구조에 정량·정성 변수(톤, 뉴스 감성, 통계)를 혼합해 정교화.
- 테일러 룰과 금융안정 변수 포함
- 테일러 룰을 모델의 기본 축·기본 탭으로 채택해 모든 계산을 시작, 초기 인더비로 금리 자동 결정.
- 기존 테일러 룰에 금융안정 요소(가계대출, 부동산 가격)를 추가하는 방안 제시.
- 톤 인덱스는 GDP/물가에 대한 금통위 판단을 내포하므로 독립변수 추정에 활용 가능.
- 2단계 분석 구조: 1) 독립변수(톤, 뉴스, 시장, 통계) 추정 2) 금리 결정 방정식 적용.
- 순환 논리 위험 인지: 초기에는 단순 모델로 시작 후 동시방정식/식별 제약 등으로 확장.
- 결론: 금융안정 지표를 포함한 테일러 룰을 기본 축으로, 톤 등 정성데이터를 보강해 시작.

- 톤 인덱스·톤 파라미터 정의와 역할
- 톤 인덱스: 매파/비둘기파 톤을 텍스트, 시장 반응, 뉴스 감성 등으로 종합한 합성 지표.
- 중앙은행 톤 인덱스와 시장 수용 톤 인덱스 등 다층 구조 필요.
- 톤 파라미터: 정책 실행 확률·의지(예: 50bp 인상 가능성)를 확률적으로 표현.
- 현재 수치와 미래 전망을 구분: 톤 인덱스는 미래 기준금리 예상에 초점(예: 현재 2.5, 톤이 2.3 시사).
- 결론: 톤 인덱스를 텍스트·시장·뉴스 감성으로 재정의하고, 정책 확률은 톤 파라미터로 분리.
- 시장 반응과 기대 대비 정책 해석
- 기준금리 발표와 시장금리의 괴리 가능성, 기대 대비 실제 발표 차이에 따른 시장금리 코렉션 사례 검토.
- 비둘기 신호라도 기대 대비 덜 비둘기이면 채권금리 상승 가능.
- 기대-실제 괴리를 누적·시각화해 투자 판단에 활용.
- 결론: 기대-실제 괴리 해석 모듈과 시장 반응 지표의 가중치·방향성 표기 가능 필요.
- 금리 경로 의존성·채권금리 해석(텀 프리미엄)
- 10년물 수익률 = 기준금리 기대 + 텀 프리미엄으로 해석.
- Volatility clustering을 고려해 안정/불안 구간별 텀 프리미엄 차이를 탐색.
- 예시: 10년물 2.25는 향후 기준금리 1.75 기대, 2.75로 급등 시 2.25까지 하락 기대로 상향 조정 의미.
- 시장 데이터만으로 분석하는 접근을 강조.
- 결론: 텀 프리미엄·기대 경로 기반의 시장금리 해석 로직을 모델에 포함.
- 데이터 소스와 구현 현황
-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(API) 연계 추진 및 일부 데이터 수집 진행.
- 시장 데이터 수집·감성 분석 전략 수립 필요, 현재 파라미터 방향성 표기가 미흡.
- 보도자료/기자간담회/통화자료 등 도메인별 리포지토리, 벡터화/트레이닝 데이터 구축,

전용 서버·인덱스 설계 논의.

- 외부 접속(API) 개방과 접속료·가입 모델, 이용 통계 수집 고려.
- 결론: 한국은행 API로 정량 데이터 확보, 시장 반응·감성 데이터 수집·표현 개선과 리포지토리·인덱스·서버 아키텍처 구상 착수.
- 모델 적용 범위 및 검증·백테스트
- 통화정책 결정문과 기자회견 자료를 함께 보며 지표 설정 및 모델 검증.
- 테라메타 변수 조합을 과거 시점(10월, 11월 등)에 적용해 다음 분기 적중률로 평가.
- 모델 적합도 초기 수치 산출, 목표 성능(정확도/설명력/적중률) 설정 후 반복 개선.
- 팔란티어 사례처럼 정보 수집 타깃을 명확히 해 효율적 토론·분석 추진.
- 결론: 기본 모델로 시작해 변수 해석을 점진적으로 보완하며 히스토리 백테스팅으로 최적 조합 탐색.
- 해외 변수 반영 방식과 환율 처리
 - FED 결정 등 해외 이벤트는 국내 시장 데이터에 내재되어 간접 반영.
 - 환율은 직접 타겟팅하지 않고 물가 영향 경로로 반영, 금리는 독립변수로, 환율은 영향 변수로 처리.
- 결론: 해외 변수·환율을 간접 반영하는 설계 원칙 재확인.
- 시장/회사 운영 문화 비교(키움 vs 미래에셋 등)
 - 키움은 상단 의사결정이 빠르고 공격적 마케팅·외부 자산 흡수에 적극적.
 - 미래에셋은 점잖은 분위기, 키움은 활발하고 시끌벅적한 문화.
 - 키움 근무 경력자의 아직 사례와 인재 육성 시사점 언급.
 - 결론 없음.
- 온톨로지 기반 경제 지식 체계 및 분석 프레임워크
 - 시장·텍스트·단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연결하는 경제 온톨로지 목표.
 - 데이터와 로직을 단순화한 온톨로지로 확장 가능한 구조 지향, 마인드맵처럼 브레이크다운/링크/중심 노드로 정보 구조화.

- LLM 기반 분석에서 시작해 온톨로지화 또는 특수목적 구조로 발전 가능, 프롬프팅만으로는 한계 인식.
- 결론: 장기적으로 온톨로지 도입으로 분석 신뢰성과 확장성 제고.
- 지표/모델 명명 전략
- 일반 명사는 마케팅에 비직관적이므로 더 직관적이고 “쿨한” 이름 필요(예: HD 인덱스, Hop Dob 인덱스 등 탐색).
- 명명은 모델/내용 정리 후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.
- 결론: 명명은 추후 최종 단계에서 결정.
- 한국은행 금통위 관련 준비 및 워크플로우
- 26일 10시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 집결, 10:30 결정문 공개에 맞춰 분석 수행.
- 9:30 시작, 전망 4개 파트를 10분씩 논의(총 50분) 후 10분 휴식, 11:30까지 자료 시청·자유토론, 13시 재모임·디브리핑·총평.
- 핵심 초점: 정책 방향의 속내와 시장 반응 두 축으로 심화 논의.
- 은퇴자/전문가 역할 정의 필요, 내부 자료 활용은 규정 준수.
- 결론: 연구위원 참여는 디브리핑까지, 이후 내부 팀 정리 지속.
- 자산군 세분화 및 개인 투자 시사점
- 부동산/채권/주식 브레이크다운, 채권(선진국/개도국, 단기/장기), 주식(대형/소형/가치 등) 세분화.
- 통화정책 결과 분석을 통한 자본시장 영향 평가와 개인 투자 시사점 도출.
- 결론: 대중 관심사 반영해 후속 심층 분석.
- 미디어·콘텐츠 생산·촬영 계획
- 팟캐스트(구간 편집·익명 공개), 유튜브(실황/주간 후속), 잡지형 텍스트(전문가 대화 정리), 보고서(AI 초안+연구위원 수정).
- 유튜브 촬영 가능한 스튜디오 룸 예약, 삼각대 등 장비로 2대 촬영 구상.
- 결론: 다음 회차에 AI 생성 ‘통화정책 결정문’ 테스트 및 피드백 진행, 공간 예약 가능 여부 확인 후 촬영 준비.

- 디자인·레이아웃 방향성
- 시리즈물 디자인 제약, 전통적/AI 보편 디자인의 한계 지적.
- 주컬러·강조컬러·보조컬러 3:1 비율 등 색채 운영 원칙, '오색찬란' 과다 디자인 지양.
- 웹·모바일 레이아웃 반응형 확인, 휴대폰 최적화 중요.
- 결론: 디자인의 힘을 빼고 내용 구조화·레이아웃을 우선 개선.
- 네트워크·컨설팅 및 글로벌 비즈니스
- 한국은행 은퇴자·금통위원 네트워크 활용, 개도국 컨설팅·IMF 교육 등 글로벌 사업 기회.
- 경제 투어(영란은행, 대학 연계) 퍼실리테이션, 각국 IB·애널리스트·이코노미스트 네트워킹.
- 해외(미국·영국·일본 등) 유사 애플리케이션/연구와 협력·아이디어 교류 의지.
- 결론: 국내 역량을 글로벌로 확장 가능한 채널 확보, 적합한 파트너 탐색 후 텔레콤/줌 미팅 추진.
- 운영 캘린더 및 점검
- 2월 첫 시행: 통화정책 중심으로 작게 시작, 연 8회 리듬, 금융안정정책 시기에는 활동 축소·모델 점검.
- 1~2회 실행 후 휴식·리뷰 반복, 3월 휴식·4월 재개 및 인원 조정 검토, 인턴 참여 및 내부 예산 범위 운영.
- 설 연휴로 18일 어려움, 25일 점검 미팅(대면/줌), 26일 행사/론칭 준비, 3월 초 외부 전문가 초대.
- 결론: 일정 확정 후 단계별 실행.
- 출판 프로젝트('돈의 12가지 얼굴')
- 2월 출간 목표였으나 표지 그림 이슈로 자연 가능, 심플·진중·신뢰감 있는 방향 선호, 반사 재질 비주.
- 외부 코멘트 반영해 최종 표지 선택.
- 결론: 표지 최종안 선정 후 출판 일정 확정.

- 인용구/출처·링크 기능
- 인용구는 원문 정확 유지, 클릭 시 해당 위치로 이동하는 링크 기능은 파일 업로드 미 완료로 난항.
- 결론: 출처 파일 업로드 후 링크 기능 재검토.
- AI 모델 및 비용 비교
- 사용 모델: ChatGPT(코덱스), Google Gemini, Claude, Moonshot(Kimi).
- Claude 성능 우수하나 비용 부담, Kimi는 비용 1/10 수준으로 우수, API 사용 시 비용 급증 유의, NVIDIA 관련 무료 배포 가능성.
- 결론: 비용/성능 비교 결과를 운영 가이드에 반영.

다음 일정

- 테일러 룰을 모델 기본 탭으로 설계·적용, 금융안정 지표(가계대출, 부동산 가격) 포함한 초기 모델 초안 작성
- 전문가 설정에서 키워드 가중치 체계(단어 중요도, 조합, 컨텍스트) 설계안 마련, 가중치 조정과 파라미터 해석 조정 인터페이스 구분 명확화
- 톤 인덱스 정의서 작성(텍스트/시장/뉴스 감성 구성, 가중치·방향성), 톤 파라미터(정책 확률·의지) 산출 로직 명세 및 시각화 설계
-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API 정식 연계 및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, 시장 반응 지표 수집(국채금리 등) 및 기대-실제 괴리 누적 시각화 구현
- 팀 프리미엄 기반 채권금리 해석 모듈 추가, Volatility 상태(안정/불안) 구간별 팀 프리미엄 추정 비교
- 과거 시점 예측 및 백테스트 수행, 모델 적합도 초기 수치 산출 및 목표 성능 설정, 11월 사례 분석 리포트 재검증
- 해외 이벤트·환율의 간접 반영 규칙 문서화, 테일러 룰 기반 현재-미래 분석 모듈 통합
- 26일 10시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 집결, 10:30 결정문 실시간 확인·요약, 25일 사전 점검 미팅 확정(대면/줌)
- 전문가/은퇴자 역할 정의 및 "전문가 설정" 구체화, 통화정책 첫 세션(2월) 세부 아젠다·타임테이블 확정

- 데이터 리포지토리/인덱스/서버 아키텍처 초안 작성 및 출처 파일 업로드·링크 기능 재검토
- 팟캐스트/유튜브/잡지/보고서 생산 일정 수립·역할 배분, 촬영 가능한 스튜디오 예약 진행
- 부동산/채권/주식 브레이크다운 초기 설계안 작성, 개인 투자 시사점 도출 지표 리스트업
- 분석 프레임워크 온톨로지화 방향성 초안 마련, 해외 유사 프로젝트 파트너 탐색·접촉, 글로벌 이식(미국·일본 등) 시나리오와 가중치 설정 초안
- 테일러 룰 역사·적용 논쟁 자료 수집·정리·사전 공유, 미팅 정리본 신속 공유
- '돈의 12가지 얼굴' 표지 최종안 선정 및 출판 일정 확정, 웹·모바일 레이아웃·색채 원칙 적용 시안 준비
- AI 통화정책 결정문 테스트 실행 및 피드백 수집, AI 모델 비용/성능 비교 결과 정리 및 운영 가이드 작성

AI 제안

- > 1. 가중치(0.5~3)의 수학적 의미(합/정규화)와 톤 인덱스 가중치(텍스트 vs 시장 vs 감성)·방향성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세요.
- >
- > 2. 가중치 조정과 파라미터 해석 조정의 경계를 기능적으로 분리하고 적용 절차를 문서화하세요.
- >
- > 3. 톤 파라미터(정책 확률) 산출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 소스·방법(분포 가정)을 확정하세요.
- >
- > 4. 기대 대비 실제 발표 차이 측정 기준(기대 경로 산출 방식, 윈도우 설정)을 정하고 시각화 표준을 마련하세요.
- >
- > 5. 템 프리미엄 측정 방법론과 안정/불안 구간 정의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소스를 합의

하세요.

>

> 6. 백테스트 평가 지표(정확도, 설명력, 적중률)의 정의·목표 수치 및 벤치마크를 설정하세요.

>

> 7. 해외 변수 간접 반영 규칙(FED 이벤트, 환율 경로)과 적용 범위를 스키마로 문서화하세요.

>

> 8. 단어 조합·컨텍스트 반영 방식(N-gram, 문맥 임베딩, 규칙 기반 등)을 선정하고 프로토타입·검증 계획을 수립하세요.

>

> 9. 데이터 리포지토리/서버 구축의 MVP 범위, 리소스(사양/예산), 인덱스 설계와 외부 API 개방 정책을 정하세요.

>

> 10. 비정형 녹취 데이터의 구조화 스키마와 도구(태깅, 요약, 임베딩) 및 품질 기준을 정의하세요.

>

> 11. AI 결정문 테스트 절차(입력 형식, 평가 기준, 피드백 루프)를 구체화하세요.

>

> 12. 테일러 룰 자료 범주(역사, 적용사례, 한계)와 제공 형식(요약/원문 링크)을 확정하세요.

>

> 13. 모델/지표 명명 규칙과 평가 체크리스트, 결정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“톤 인덱스” 대체 명칭을 검증하세요.

>

> 14. 글로벌 확장 시 국가별 커스터마이징 기준(가중치, 전문가 의견 반영 수준)의 정책

가이드라인을 마련하세요.

>

> 15. 콘텐츠 포맷별 공개 주기·품질 기준(검수·보안·익명 처리)과 촬영 일정·담당자·마감일을 설정하세요.

>

> 16. 기자 네트워크·경시대회 운영 가이드라인(법적·윤리 기준, 공정성, 자원 배분)을 문서화하세요.

>